



폐기물이 에너지가 되는 하수처리장, 특허심사관이 찾아간다

- 지식재산처, 수처리·폐자원 에너지화 기업 (주)부강테크 방문 -

【관련 국정과제】 40. 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실현
42.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4. 28.(화) 13시30분 (주)부강테크(대전시 유성구)를 방문하여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에 있어 환경기술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특허심사관의 현장 기술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부강테크는 하수로부터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폐자원 에너지화 기술을 보유한 환경기술 전문기업이다. 수처리 기술로 2020년 특허기술상(세종대왕상)을 수상하고, 최근 미국 밀워키 광역 하수처리기관과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국내외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지식재산처 특허심사관들은 대전하수처리장에서 저에너지 소비형 하수처리 공정을 참관하여 현장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일 계획이다. 이어 진행되는 간담회에서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전략 및 심사 사례로 살펴본 ‘강한 특허’ 확보 방안을 공유하고, 기업이 체감하는 지식재산 관련 불편 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지식재산처 이호조 화학생명심사국장은 “폐자원 에너지화 기술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기반”이라면서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강한 특허’를 확보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 사진은 행사 후 배포 예정

담당 부서	화학생명심사국 환경기술심사팀 유기화학심사과	책임자	과 장	정기주 (042-481-5426)
		담당자	사무관	손연미 (042-481-8151)
		책임자	과 장	좌승관 (042-481-5534)
		담당자	사무관	문영준 (042-481-5487)